

# 자아개념, 애착, 교사 및 또래 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조선족 및 한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Self-concept, Attachment,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Peer on  
Korean, Korean-Chinese and Chinese Adolescents' Aggression\*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박민정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박혜원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 Park, Min-Jung

Dept.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Choi, Hyewon Park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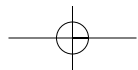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of aggression and its predictors among Korean, Korean-Chinese and Chinese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529(176 Korean, 168 Korean-Chinese, 185 Chinese) 9th graders from Yanji in China and Korea. Data on aggression, self-concept, attachment to mother,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victimization from peers were collected with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adolescents reported the highest and Chinese adolescents the lowest on aggression.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proactive aggress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and on reactive aggression among Korean adolescents. Among Korean adolescents, no gender difference was revealed. The influences of self-concept, attachment to mother,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victimization from peers differed among the groups: While attachment to mothe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Chinese adolescents' aggression, relationship with teachers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that of Korean-Chinese adolescents', and victimization from pee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that of Korean adolescents'. The differential influence of race and culture to adolescents' aggression was discussed.

Corresponding Author: Choi, Hyewon Park, Dept.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37-308 Mookeo-2dong, Namgu Ulsan, Korea  
Tel: 82-52-259-2367 Fax: 82-259-2888 E-mail: hyewonc@mail.ulsan.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주제어(Key Words):** 조선족(Korean-Chinese), 한족(Chinese), 한국 청소년(Korean adolescents), 공격성(aggression), 자아개념(self concept), 교사관계(relationship with teachers), 모애착(attachment to mother), 또래괴롭힘(peer victimization)

## 1. 서론

최근 한반도에서는 과거 50년동안의 민족 분단의 벽이 무색하리만큼 활발한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으로 시작된 남한 민간인의 북한 방문은 최근 개성관광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산가족상봉 행사로 한정적이긴 하지만, 북한 민간인의 남한 방문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남북한 경협에 의해 매일 북한으로 출퇴근하는 남한 직장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남북한 교류는 남과 북 모두에게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상생의 길로 인식되면서 더욱 확대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은 오랜 분단으로 인해 동일 민족으로서의 동질성보다는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성장함으로써 야기되는 이질감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이질감과 단절감은 앞으로의 활발한 민족 교류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조선족은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중국 조선족의 주요 거주지인 동북 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고, 과거 북한쪽에 거주한 한민족이 이주한 경우가 많고, 현재도 북한주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라 북한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내에는 취업과 학업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북 3성은 중국내에서도 남한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중국이긴 하지만, 남북한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연변지역은 조선족 자치구로서 인구의 40%가 조선족이고, 조선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중국이라는 거시체계내에서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지키며 생활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선족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조복희, 박혜원, 이사라, 이주연, 박민정, 2005; 조복희, 이귀옥, 박혜원, 이진숙, 한세영, 2004)은 연변 지역의 조선족이 급격한 인구 이동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조선족 학교 및 학생 수의 감소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부모의 나라로 인식하던 한국보다는 자신의 국적국가인 중국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긴밀히 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이에 따라 조선족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언어와 민족적 전통이 차츰 사라

지고 중국 주류사회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과 중국 간의 복잡한 정치 경제적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동북공정과 같은 현상에서 나타나듯이 국제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여, 다른 지역의 동포들보다 더 많은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리라 추측된다. 또한 부모가 한국 등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증가하여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이 빈번하여 이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중 삼중의 적응문제에 봉착하였다 볼 수 있다.

통일 한국이라는 한국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리고 그 독특한 생태학적 환경 때문에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적응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최근 조선족과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적응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다른 변인들보다 공격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박민정, 박혜원, 2005; 조복희 외, 2004).

청소년기의 공격적인 행동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부적응까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다(Kupersmidt, Coie, & Dodge, 1990; Loeber & Hay, 1997;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공격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와 공격성의 하위유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박민정, 2003).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소년의 환경적인 특성에 집중한다.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변인으로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자아개념과 청소년의 공격성을 살펴본 연구는 자아개념이 부정적일수록 범죄나 폭력 행동에 많이 참여하고(신종순, 1991; Reston, 1995), 자기가치 평가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다고(McMahon & Watts, 2002)보고한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주위와 갈등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는 경향이 높다(Rigby & Slee, 1993).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혜원, 이혜경, 2000; 박민정, 2003). 하지만 이것은 공격성에 대한 하위유형을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실시한 결과이므로 자아개념과 공격성간의 명확한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야기된다.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으로는 크게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으로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행동, 학대,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 등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지영, 1999;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Ireland & Power, 2004; Kaufman & Cicchetti, 1989). 이 중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가정환경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에 비해 불안정 애착 남아는 더 공격적이고(Turner, 1991), 어린 시절의 불안정 애착의 형성이 아동기의 비정상적인 공격적 행동 발달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지만(Constantino, 1995), 이러한 애착이 청소년 시기에도 여전히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현대의 청소년들은 가정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자연히 부모나 형제보다 학교의 교사나 친구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청소년의 공격성 또한 가정보다는 학교의 환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학교환경으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는 변인은 교사 및 또래와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계인 데, 공격성과의 관련성은 일관성이 없다.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와 공격성간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이상균, 1999)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박민정, 2003;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친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이상균, 1999; Camodeca, Goossens, Terwogt, & Schuengel, 2002)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박민정, 2003)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또한 교사 및 또래와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함께 공격성의 유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중인 데, 공격성은 크게 공격적 행동의 기능과 그 표현방식으로 구분된다. 즉, 공격행동이 자신을 해치려는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가 아니면 공격받은 것에 대한 반응인가에 따라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 대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으로 구분한다. 또한 그 표현방식이 타인이 공격적인 것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형태의 공격성인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과 쉽게 외부로 표출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소문내기과 배척 등과 같은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한다. 최근 Hart, Nelson, Robinson, Olsen, McNeilly-Choque, Porter, & McKee(2000)와 Little, Jones, Henrich, & Hawley(2003)은 이 두가지를 합하여 4가지 유형의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Dodge와 Crick(1987)의

주도적 그리고 대응적 공격성은 크게 외현적 공격성의 형태로 구분된다. 최근 공격성의 유형에 관한 국내 연구(박민정, 최보가, 2004; 박성연, 2002; 박서연, 강지훈, 2005)들은 대체로 주도적, 대응적, 그리고 관계적인 3가지의 하위유형으로 공격성을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아의 공격성이 여아보다 높다고 보고 된다. 그러나 최근, Crick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는 연구자들이 남아에게만 높게 나타나는 외현적 공격성만을 가지고 조사했기 때문이고 관계적 공격성은 오히려 여아가 더 높다고 주장한다(Crick & Grotpeter, 1995; Crick, Bigbee, & Howes, 1996; Galan & Underwood, 1997). 또한 주도적 공격성과 대응적 공격성에서도 성차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Camodeca *et. al.*, 2002). 그러나 최근 비서구문화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연구(French, Jansen, & Pidada, 2002; Hart *et. al.*, 1998)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문화에 특정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민정, 도현심, 2001)에서도 서구의 연구결과와 다르다는 점은 청소년이 속해있는 사회 및 문화적 환경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은 그들의 부정적 특성과 연관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공격성을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대응적 공격성은 다른 유형의 공격성과는 다른 심리적 기제와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에서 하위유형별 비교는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공격성은 자아개념, 부모와의 애착, 그리고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이 공격성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실시하여 청소년의 공격성 예방과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미흡하였다. 또한, 공격성의 하위유형과 관련한 연구결과도 대부분 서구문화권의 결과인 관계로 동양 문화권의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적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주요한 부적응 행동 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공격성이 흔히 동일한 동양 문화권이라고 간주되는 중국과 한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서구 문화권의 청소년들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청소년과 동일한 민족이면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또한 한족 청소년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민족이 다른 조선족 청소년들의 공격성이 어떻게 발달되는가를 살펴보고 이들의 바람직한 적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연변 한족, 조선족, 그리고 한국 청소년의 (주도적, 대응적,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 자아개념, 그리고 모에 대한 애착, 교사 및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중국 연변의 조선족 및 한족 중학교, 그리고 한국의 경복지역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2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조선족 및 한족 중학교에서는 각각 99%와 100%, 그리고 한국 중학교는 95%였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학교 입학 연령에서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중 3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연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 3재학 학생의 출생연월인 1989년 3월 1일~1990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이 기간 전후에 출생한 청소년의 자료와 부실 기재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조선족 중학생 168(남 83, 여 85)명, 한족 중학생 185(남 90, 여 95)명, 그리고 한국 중학생 176(남 72, 여 104)명으로 총 52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연구도구

청소년의 공격성, 자아개념, 어머니와의 애착,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각 척도의 하위변인과 집단별 신뢰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척도의 하위변인 및 집단별 신뢰도

개 념	하위변인	집단별 신뢰도			전체 신뢰도
		한국	조선족	한족	
공격성	주도적공격성	.91	.86	.87	.89
	대응적공격성	.75	.80	.81	.80
	관계적공격성	.85	.80	.83	.83
자아개념	학업자아개념	.68	.63	.61	.68
	운동자아개념	.91	.84	.80	.85
	우정자아개념	.71	.74	.71	.75
	외모자아개념	.76	.79	.69	.75
	사회적수용자아개념	.72	.56	.71	.73
	전반적자기 가치감	.78	.70	.65	.72
어머니와의 애착	의사소통	.90	.88	.79	.86
	신뢰감	.67	.69	.59	.66
	소원감	.81	.74	.74	.76
교사관계	교사관계	.66	.63	.52	.68
또래관계	외현적피로움	.85	.84	.81	.83
	관계적피로움	.81	.76	.78	.80

### 1) 공격성

연변 한족, 연변 조선족, 그리고 한국 중학생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Crick과 Grotpeter(1995, 1996), Dodge와 Coie(1987), Hart *et. al.*, (2000)의 척도와 박민정(2003)의 척도를 참고로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도적-외현적(이하 주도적, 6문항), 대응적-외현적(이하 대응적, 6문항),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8문항)을 측정할 수 있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언제나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도적 공격성은 목적 지향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폭행과 같은 신체적인 공격행동과 욕설이나 폭언과 같은 언어적인 공격 행동들로 직접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행동을 의미하고, 대응적 공격성은 또래에 의한 도발에 대해 신체적이나 언어적 형태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공격행태를 의미하고, 관계적 공격성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래를 놀이과정이나 친구집단에서 소외시키기, 나쁜 소문 퍼뜨리기 등과 같이 또래관계에 대한 해를 입히는 공격행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로 산정하였는데 .92(주도적 공격성은 .89, 대응적 공격성은 .80,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은 .83)로 나타났다.

### 2) 자아개념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Harter(1988)의 청소년용 자기-지각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척도는 9개 하위 영역(학업 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 외모, 전반적 자기 가치감, 우정, 직업능력, 낭만적 매력, 행동)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5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6개 하위요인 총 2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용된 요인은 학업, 사회적 수용, 운동, 외모, 전반적 자기 가치감, 그리고 우정 자아개념이고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로 학업자아개념이 .69, 사회적 수용은 .73, 우정 자아개념은 .75, 외모 자아개념은 .75, 전반적 자기 가치감이 .72 그리고 운동 자아개념이 .85로 나타났다.

### 3) 애착

애착의 측정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청년기 대상의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원본을 번안한 설문지에 의해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래 IPPA는 Likert식 5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IPPA는 세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부모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에 나의 의견을 고려하며,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지에 관해 묻는 10개의 문항이다. 둘째는 신뢰감(trust)문항으로 걱정이 있을 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소원감(alienation)요인은 집에서 나에게 무관심하며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 등을 묻는 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8개로 구성된 애착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3개 요인에 포함된 2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부터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86, 신뢰감은 .66, 그리고 소원감은 .76으로 나타났다.

#### 4)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노숙영(1997)의 학교생활 적응척도와 Doh와 Falbo(1999)의 사회적 능력척도를 기초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척도는 청소년의 학교 생활의 전반적 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4개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후 교사관계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교사관계 요인(6문항)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교사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부터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가 .68로 나타났다.

#### 5) 또래관계

또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박민정(2003)의 또래 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 괴롭힘 척도는 외현적 및 관계적 괴롭힘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총 11문항의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3개 문항을 제외한 8개 문항(외현적 괴롭힘 5문항과 관계적 괴롭힘 3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외현적 괴롭힘은 .83이고, 관계적 괴롭힘은 .80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연변 한족과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 2004년 12월 11~13일 사이에 중국 연길시의 한족과 조선족 중학교 각각 1개교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현지의 연구보조원의 지도하에 학생

들이 완성하도록 하였다. 한족용 설문지는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한 조선족 유학생이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이를 다시 다른 조선족 유학생이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 완성하였다. 조선족용 설문지는 동일한 조선족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조선어로 부분 수정하여 제작되었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2004년 12월 15~20일 사이에 연변과 도시의 규모와 특성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북의 중소도시의 중학교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PC+ Vers 12.를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민족별로 각 공격성 하위유형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격성 하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성, 자아개념, 그리고 어머니, 또래 및 교사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인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한국 및 연변 조선족과 한족 청소년의 공격성 비교

〈표 2〉는 한국 및 연변 조선족과 한족 청소년의 공격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족 집단별로 공격성 각 하위요인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주도적 공격성은 한국 청소년이 가장 높고, 조선족과 한족 청소년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11.76, p<.001$ ). 연변 한족 청소년과 연변 조선족 청소년 간에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대응적 공격성의 경우에도 한국 청소년이 가장 높고, 한족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8.75, p<.001$ ). 조선족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간의 집단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관계적 공격성도 한국 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연변 조선족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5.85, p<.01$ ).

〈표 2〉 한국 및 연변 조선족과 한족 청소년의 공격성 비교

공격성 하위유형	한 국	조선족	한 족	F
주도적 공격성	1.80 <sup>b</sup>	1.65 <sup>a</sup>	1.52 <sup>a</sup>	11.76***
대응적 공격성	2.41 <sup>b</sup>	2.33 <sup>b</sup>	2.19 <sup>a</sup>	8.75***
관계적 공격성	1.86 <sup>b</sup>	1.67 <sup>a</sup>	1.79 <sup>ab</sup>	5.85**

\*\* $p<.01$ , \*\*\* $p<.001$

## 2.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 및 연변 조선족과 한족 청소년의 주도적, 대응적,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별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하위변인간의 상관( $r=.70\sim.72$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검증을 위해 VIF 계수와 공차한계(Tolerance)를 살펴 본 결과, VIF 계수는 1.62~2.72이고, 공차한계는 .37~.62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Durbin-Watson 검증을 통해 잔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1.78~2.00으로 나타나 잔차간 자기 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청소년의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과 환경변인

한국, 연변 조선족 및 연변 한족 청소년의 주도적 공격성에 대한 성, 자아개념(학업, 운동, 우정, 외모, 사회적 수용, 전반적 자기가치감), 어머니와의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원감),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관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의 주도적 공격성은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인 괴롭힘( $\beta=.26, p<.001$ )과 사회적수용자아개념( $\beta=.32, p<.001$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선족 청소년의 주도적 공격성은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인 괴롭힘( $\beta=.22, p<.01$ )과 교사관계( $\beta=-.18, p<.05$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족 청소년의 경우는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인 괴롭힘( $\beta=.32, p<.001$ ), 어머니와의 애착 소원감( $\beta=.20, p<.01$ )과 청소년의 성( $\beta=-.17, p<.01$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의 주도적 공격성은 또래로부터 관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고 사회적 수용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청소년의 주도적 공격성

〈표 3〉 청소년의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집 단	독립 변인	B	$\beta$	R <sup>2</sup>	F
한 국	관계적괴롭힘	.28	.26***	.20	13.21**
	사회적수용자아개념	.27	.32***		
조선족	관계적괴롭힘	.23	.22**	.09	8.76***
	교사관계	-.22	-.18*		
한 족	관계적괴롭힘	.27	.32***	.19	16.37***
	어머니와의 소원감	.16	.20**		
	청소년의 성 <sup>1)</sup>	-.20	-.17**		

\*\*p<.01, \*\*\*p<.001, 1)은 터미변수화 하였음.

은 또래로부터 관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족 청소년의 주도적 공격성은 또래로부터 관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어머니와의 애착에서 소원감을 많이 느낄수록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청소년의 대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표 4>는 청소년의 대응적 공격성에 대한 성, 자아개념(학업, 운동, 우정, 외모, 사회적 수용, 전반적 자기가치감), 어머니와의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원감),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관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의 대응적 공격성은 외모자아개념( $\beta=-.36, p<.001$ )과 사회적 수용 자아개념( $\beta=.28, p<.001$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조선족 청소년의 대응적 공격성은 교사관계( $\beta=-.20, p<.001$ ), 사회적 수용자아개념( $\beta=.25, p<.01$ ), 그리고 청소년의 성( $\beta=-.17, p<.05$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족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애착 소원감( $\beta=.34, p<.001$ )과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 괴롭힘( $\beta=.22, p<.01$ ), 그리고 운동자아개념( $\beta=.17, p<.01$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은 외모자아개념이 낮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수용자아개념은 높을수록 대응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선족 청소년은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사회적 수용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대응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족 청소년은 어머니와 소원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또래로부터 관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운동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대응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표 5>는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성, 자아개념(학

〈표 4〉 청소년의 대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독립 변인		B	$\beta$	R <sup>2</sup>	F
한 국	외모자아개념	-.24	-.36***	.13	12.43***
	사회적수용자아개념	.22	.28***		
조선족	교사관계	-.35	-.20***	.12	8.03***
	사회적수용자아개념	.23	.25**		
	청소년의 성 <sup>1)</sup>	-.18	-.17*		
한 족	어머니와의 소원감	.30	.34***	.19	14.76***
	관계적 괴롭힘	.20	.22**		
	운동 자아개념	.12	.17**		

\*p<.05, \*\*p<.01, \*\*\*p<.001, 1)은 터미변수화 하였음.

〈표 5〉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F
한 국	관계적괴롭힘	.21	.22**	.05	8.48**
조선족	관계적괴롭힘	.27	.30***	.13	10.92***
	교사관계	-.21	-.19*		
한 족	관계적괴롭힘	.28	.36***	.22	12.91***
	어머니와의 소원감	.16	.20**		
	교사관계	-.23	-.17**		
	외현적괴롭힘	.19	.15*		

\*p<.05, \*\*p<.01, \*\*\*p<.001

업, 운동, 우정, 외모, 사회적 수용, 전반적 자기가치감), 어머니와의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원감),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관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한국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인 괴롭힘( $\beta=.22$ ,  $p<.01$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은 관계적 괴롭힘( $\beta=.30$ ,  $p<.001$ )과 교사관계( $\beta=-.19$ ,  $p<.05$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족 청소년의 경우는 관계적 괴롭힘( $\beta=.36$ ,  $p<.001$ ), 어머니와의 소원감( $\beta=.20$ ,  $p<.01$ ), 교사관계( $\beta=-.17$ ,  $p<.01$ ), 그리고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외현적 괴롭힘( $\beta=.15$ ,  $p<.05$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로부터 관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선족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로부터 관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족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로부터 관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어머니와의 애착 소원감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또래로부터 외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한족, 조선족 및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집단간의 공격성의 차이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 및 환경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을 3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각 하위유형별로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주도적, 대응적,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 모두에서 한국 청소년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변 지역의 한족과 조선족 및 한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기질 연구(박혜원,

박민정, 2005)에서 기질의 하위유형인 '공격성'에서 한국 초등학교의 공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실제로 세 집단 중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화된 사회가 획일적인 사회보다 공격성에 대한 억압을 적게 한다(Lai, Zhang, & Wang, 2000)는 결과를 볼 때, 중국 사회보다 다문화화된 한국의 중학생들이 공격성에 대한 표출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 한족 및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는 공격성에 대한 표현을 훨씬 더 억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평정을 학생 스스로가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공격성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문화권마다 자기 평정시 지각의 차이가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성이 공격성의 하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 본 결과, 성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공격성의 3가지 하위유형 모두에서 남녀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들(박민정, 2003; 박민정, 최보가; 2004)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응적 공격성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남녀간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족 청소년은 주도적 공격성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은 한국사회보다 훨씬 더 성 평등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한족의 남학생이 남성에게 더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외현적 형태의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은 조선족과 한족 남학생에게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이라는 전체주의적 사회특징으로 인해 이중의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전체주의적 특성이 없다면, 중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일련의 조선족 연구를 수행하면서 본 연구자들은 다양한 계층의 조선족 및 한족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매우 단정적으로 중국사회에서의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선족 아동의 성역할에 대한 연구(조복희 외, 2005)에서는 여전히 중국 사회의 성차별을 확인하고 있는데, 본 연구도 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아개념과 어머니, 교사 및 또래변인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조선족, 한족 그리고 한국 청소년 세 집단 모두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 괴롭힘이 청소년의 주도적 대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래로부터 관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다는 것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또래로부터의 피공격성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김현수, 1997; 이상균, 1999; 이춘아, 2001; Hanish & Guerra, 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또래로부터의 폭력경험이 폭력에 대한 일종의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선행 연구들이 외현적 괴롭힘도 동일한 학습효과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본 연구결과에서는 연변 한족 청소년의 주도적 공격성 이외에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대상의 연령 집단에서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외현적 괴롭힘이 가장 적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Cairns, Cairns, Neckerman, Ferguson, & Garieoy, 1989). 또한 문화와 거주지역 등의 거시체계가 달라도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또래가 매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 괴롭힘을 제외하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즉, 한족과 한국의 청소년의 공격성에는 교사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관계적 괴롭힘과 함께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공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박민정, 2003; 유안진 외, 2002)에서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교사와의 관계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선족 청소년들은 세가지 하위유형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변 조선족 소학교 학생들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박민정, 박혜원, 2005)에서는 교사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공격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차이가 있다.

반면, 한족 청소년들은 관계적 괴롭힘과 함께, 어머니와의 애착 소원감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변 한족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소원할수록 주도적·대응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한 Ireland와 Power(2004)의 결과와 안전애착이 부족할수록 아동의 주도적 및 대응적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한 Marcus와 Kramer(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중3의 연령 집단임을 감안한다면, 기존연구들과는 조금 상반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즉, 국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연구들(박민정, 2003; 이상균, 1999)에서, 청소년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포함한 가정환경변인보다는 학교나 또래의 영향력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연변 조선족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의 발달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다만, 청소년기에 도달하면서 어머니와의 관련변인을 포함하는 가정환경 변인보다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또래 변인이 청소년의 여러 발달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의 여러 적응에 관련한 연구들은 모두 학교나 또래가 훨씬 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만, 연변 한족의 경우 여전히 어머니와의 애착이 주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국의 한족의 경우 현재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1가정 1자녀 정책의 영향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조선족의 경우는 동일한 중국에 살고 있긴 하지만, 소수민족에게는 2자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족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연변 조선족 소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어머니와의 애착 요인이 매우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나서(조복희 외, 2005),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이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의 공격성은 교사나 어머니와의 애착의 영향보다는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 괴롭힘과 함께, 자아개념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수용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주도적 공격성과 대응적 공격성이 높고, 외모자아개념이 낮을수록 대응적 공격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공격성이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Camodeca et al., 2002; Rigby & Slee, 1993). 사회적 수용 자아개념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고 외모에 대한 판단도 청소년기에는 부모보다는 또래의 판단에 더 의존하리라 생각될 때, 한국의 청소년들은 조선족과 한족의 청소년들보다 발달과정에서 또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일부 자아개념은 조선족, 한족 및 한국 청소년들의 대응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 교사관계와 함께, 사회적 수용 자아개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한족 청소년은 운동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공격성이 높고, 한국 청소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모와 사회적 수용 자아개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공격성이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Camodeca et al., 2002; Rigby & Slee, 1993)를 일부 지지하긴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자아개념의 하위요인들과 공격성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상세히 연구한 결과가 없는 관계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격성은 청소년의 부정적 심리적 상태와 흔히 연관지어 왔는데, 대응적 공격성의 경우, 한족 청소년은 운동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조선족과 한국 청소년은 사회적 수용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김혜원, 이혜



경, 2000; 박민정, 2003; Olweus, 1994)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대응적 공격성의 경우, 주도적 공격성과는 달리 공격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공격성을 사용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경우, 오히려 자아개념이 향상된다는 결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김혜원과 이해경(2000), Olweus(1994)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물론, 대응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평균이하의 자아존중감을 가진다고 보고한 Camodeca *et. al.*, (2002)과 Dodge와 Coie (1987)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우리 연구대상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한족 청소년에 비교하여 조선족과 한국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이 조금 더 유사한 것을 볼 때, 민족적 동일성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결과에서 주도적, 대응적,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에서 연변 한족, 연변 조선족, 그리고 한국 청소년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문화적 연구에서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차이가 공격성 자체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문화나 개인이 공격성을 정의하고 평정하는 방법에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공격성을 청소년이 스스로 평정하였으나, 공격성의 평정은 자기보고, 교사보고, 또래보고 그리고 관찰자 보고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한 평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최근에 French 등(2002)은 보다 정확한 공격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관찰자가 비교집단의 청소년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평정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조선족과 한족 청소년의 외현적 형태의 공격성에서 남녀의 차이가 밝혀졌지만, 이러한 결과가 전체주의적 사회라는 체제의 문제인지 아니면, 성장때문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각각의 공격성 하위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집단마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집단간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또는 소속문화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가치감과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집단간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는 것이 요구된다. 만약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상관이 나타난다면, 공격적 청소년의 발견과 치료 및 예방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

리라 기대된다.

넷째, 한족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애착요인이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조선족과 한국 청소년의 경우는 교사와 또래 관련변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중국의 1가정 1자녀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동일한 동양 문화권이지만, 전통적인 유교적 관습이 중국의 한족에게 더 많이 남아있어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매우 다양한 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변인만을 가지고 세 집단의 청소년의 공격성을 비교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환경 변인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세 집단의 공격성 비교를 위해 한국을 기준으로 중3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박민정(2003)은 한국의 중1, 2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연구에서 대응적 공격성은 기존의 공격성과는 다른 심리적 기제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응적 공격성은 일부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 한족의 경우는 운동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적 수용개념이 높을수록, 한국의 청소년의 경우, 비록 외모 자아개념은 부정적이지만, 사회적 수용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치료로 분노조절이나 감정입입훈련 그리고 자아개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응적 공격성이 기존의 공격성에 대한 특성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차후의 공격적 아동 및 청소년의 발견 및 치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하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더욱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흔히 동양권이라고 동일하게 간주되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동일한 민족이지만 다른 국가적 체제내에서 생활하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그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공격성 감소와 그들의 바람직한 적응에 기여를 하리라 기대된다.

## ■ 참고문헌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

- 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현수(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경험과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이해경(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노숙영(1997).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200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정, 박혜원(2005).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과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10), 141-153.
- 박민정, 최보가(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41-66.
- 박성연, 강지훈(2005). 남, 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박혜원, 박민정(2005). 연변 지역의 조선족과 한족 및 한국 아동의 기질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3), 221-231.
- 신종순(1991).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지영(1999).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0.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춘아(2001).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복희, 박혜원, 이사라, 이주연, 박민정(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사회적·정서발달과 사회적 영향요인. 서림출판사: 부산.
- 조복희, 이귀옥, 박혜원, 이진숙, 한세영(2004). 연변 조선족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생태학적접근. 아동학회지, 25(3), 127-140.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Press.
- Camodeca, M., Goossens, F. A., Terwogt, M. M., & Schuengel, C. (2002). Bullying and victimiz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Stability link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Social Development*, 11(3), 332-345.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I., Ferguson, L. L., & Garieoy, J. L. (1989). Growth and aggression:1.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20-330.
- Constantino, J. N. (1995). Ear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children. *Harvard rev Psychiatry*, 2, 259-273.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Bigbee, M. A., & Howes, C. (1996).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How do I hurt thee? Let me count the ways. *Child Development*, 67, 1003-1014.
- Dodge, K. A., & Coie, J.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Doh, H. S.,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3(1), 149-162.
- French, D. C., Jansen, E. A., & Pidada, S. (2002). United States and Indonesian children's and adolescents' reports of relational aggression by disliked peers. *Child Development*, 73(4), 1143-1150.
- Galen, B., & Underwood, M. K. (1997).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89-600.
- Hanish, L. D., & Guerra, N. G. (2000). Predictors of peer victimization among urban youth. *Social*

- Development*, 9(4), 521-543.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o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McNeilly-Choque, M. K., Porter, C. L., & McKee, T. R. (2000). Russian parenting styles and family processes: Linkages with subtypes of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In Kerns, K. A., Contretras, J. M., & Neal-Barnett, A. M. (Eds.). *Family and peers: Linking two social worlds*. Westport, Praeger.
- Harter, S. (1988).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Greca (Ed.), *Through the eyes of a child*. Boston: Allyn and Bacon.
- Ireland, J. L., & Power, C. L. (2004). Attachment, emotional loneliness, and bullying behaviour: A study of adult and young offenders. *Aggressive Behavior*, 30, 298-312.
- Kaufman, J., & Cicchetti, D. (1989). Effects of maltreatment on school-age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ssessments in a day-camp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16-524.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7). Victimized children's responses to peers' aggress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duced versus continued victim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59-73.
- Kupersmidt, Coie, J. & Dodge, K. A.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ai, A. C., Zhang, Z., & Wang, W. (2000).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in Hong Kong and Beijing Chinese families: A Compar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5(1), 60-66.
- Little, T. D., Jones, S. M., Henrich, C. C., & Hawley, P. H.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22-133.
-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Psychology*, 48, 371-410.
- Loeber, R., & Stouth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Marcus, R. F., & Kramer, C. (2001).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 predicto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3), 260-275.
- McMahon, S. D., & Watts, R. J. (2002). Ethnic identity in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4), 411-432.
- McNeilly-Choque, M. K., Hart, C. H., Robinson, C. C., Nelson, L. J., & Olsen, S. F., (1996).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on the playground: Correspondence among different informant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1, 47-67.
- Olweus, D. (1994). Annotations: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Reston, V. (1995). Helping middle level and high school students develop trust, respect, and self-confidence. *NASSP(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Practitioner*, 21(4), Apr.
- Rigby, K., & Slee, P. T. (1993). Australian school children's self appraisal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e bullying experience. *Child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23(4), 273-282.
- Schippell, P. L. (2001). The role of Narcissism, self-esteem and attentional biases in childhood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Turner, P. J. (1991). The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 1475-1488.

(2005년 9월 30일 접수, 2005년 12월 13일 채택)